

전쟁 승패는 군의 정신전력·기량에

공군사관학교 제29기 졸업식 유시

1981년 4월 6일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김인기 교장을 비롯한 공군사관학교 교수, 교관단과 학부모, 그리고 내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공군사관학교 제29기 졸업식에 즈음하여, 먼저 지난 4년간 소정의 교육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국군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영예로운 임관이 있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을 지도하고 뒷받침해 준 학교당국과 학부모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신임장교 여러분이 하늘의 방패로서 조국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임지로 향하는 지금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사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의 국제정세의 추이를 살펴볼 때 각국간의 이해상충으로 세계 도처에서 긴장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인 대립과 무력충돌이 계속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반도정세는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각축 속에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여전히 대남적화를 기도하고 있어 불안과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외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굳건히 하는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이 모든 국정의 선결요건임을 깊이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찬 제5공화국의 건설도 확고한 국가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정의의 이념도 평화와 안정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1·12제의는 동족간의 전쟁을 회피하고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자 하는 간절한 민족적 염원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최근 본인의 방미로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안전보장의 지렛대인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평화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집단의 모험주의와 일부 강대국의 팽창주의전략은 언제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침략과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를 즉각 격퇴할 수 있는 힘과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만 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이제 정든 교문을 떠나 조국수호의 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고도로 발달된 과학병기를 구사하는 현대전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의 선제 기습에 의한 속전속결전술입니다.

특히 우리의 수도 서울이 불과 수분내에 적기의 내습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음에 비추어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역할과 사명은 막중한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대공방위력의 강화를 위해 최신예 전투기의 확보와 항공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방위산업의 육성에 힘입어 항공기의 국내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멀지않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최신예 전폭기를 도입하게 되고, 또한 우리 손으로 제작된 전투기가 실용화될 단계에까지 이르는 등 우리의 공군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장비나 병기가 얼마나 우수하고 숫자가 많은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패의 열쇠는 전투에 나서는 군인들의 정신전력과 기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은 세계전쟁사의 생생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졸업생 여러분과 같이 쾌기있고 우수한 청년장교들을 우리 공군이 새로 맞이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임지에 가서도 지난 4년간 이곳 성무대에서 같고 닦은 필승의 신념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고도의 전술전기를 더욱 연마하여 일기당천의 전투력을 배양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일찍이 많은 희생을 무릅쓰면서 거의 맨주먹으로 적의 침략을 격퇴하고, 필승 공군의 빛나는 전통을 확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공군의 정예화를 이룩하고 철통같은 대공방위태세를 구축한다면 적은 감히 우리의 하늘을 넘보지 못할 것이며, 설혹 무모한 도발을 해온다 하더라도 초전에 이를 격멸 응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불침번으로서 소임을 다할 때 우리 국민은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밝고 잘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끝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제 용약 임지로 향하는 신임장교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